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29e734b4361516d5ef5e7d58f4005af6f530304f306a218978250e843f135ed8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주가,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위험 신호들도 지속
 - ECB 부총재, 향후 경제 전망의 상향 조정이 가능
 - State Street Global Advisors, 테이퍼링 탠트럼(긴축 발작) 가능성은 낮은 편
 - 로이터, 전세계 3/4분기 기업이익은 2/4분기에 비해 8% 감소할 전망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5bp]

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반도체 및 금융 관련주 등이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 600 지수는 잭슨 홀 미팅 앞두고 관망세 유지되며 보합 마감
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3% 절하
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상승 등이 배경
독일은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 상향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4.7원, -3.9원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8/25일	8/24일	전일대비			8/25일	8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96.2	4,486.2	0.2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4%	1.29%	5bp
	유럽	471.84	471.79	0.01%		독일	-0.42%	-0.48%	6bp
	중국	3,540.4	3,514.5	0.74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725	27,732	-0.03%		중국	35bp	35bp	0bp
	한국	3,146.8	3,138.3	0.27%	위험 지표	EMBI+	-	360	-
환율	달러지수	92.81	92.89	-0.09%		VIX	16.79	17.22	-2.50%
	유로화	1.1772	1.1756	0.14%		WII유	68.36	67.54	1.21%
	엔화	110.02	109.65	-0.34%	원자재	구리	426.3	425.8	0.11%
	위안화	6.4757	6.4714	-0.07%		금	1,791.0	1,802.9	-0.66%
	원화	1,168.1	1,165.6	-0.2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가,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위험 신호들도 지속

- 미국 주요 주가지수들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기록. 하지만 Lombard Odier의 Vasileios Gkionakis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위험 신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. 첫째,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기업이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
- 둘째,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. 주요국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등이 최근 하락. 셋째,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개별주식의 수가 점차 감소. 이는 향후 매물이 점차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
- 넷째, 금년 상반기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리플레이션 매매(주식 매수, 채권 매도) 기조가 점차 악화. 다섯째, S&P500 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콜옵션 매수 비율이 매우 높은 편. 이는 역설적으로 지수 하락 가능성을 시사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부총재, 향후 경제 전망의 상향 조정이 가능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이라면서, 9월에 발표할 예정인 3/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.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
- 레인 이사는 백신 접종 확대와 공중 보건 개선 노력이 진전되면서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.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4.6%와 4.7%를 제시. 다만 공급병목 현상 등은 경제에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
- 또한 연준의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며, 특히 역내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.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 이후 대책은 점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첨언

■ State Street Global Advisors, 테이퍼링 텐트럼(긴축 발작) 가능성은 낮은 편

- Michael Arone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투명성이 높아 시장이 이미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. 또한 테이퍼링이 시행된다고 해도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

■ 독일 경제장관, 코로나 19 확산 불구 경제회복은 지속될 전망

- 알트마이어 장관은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들에게는 봉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, 이를 고려할 때 금년 경제활동은 연말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. 금년과 내년 성장률도 기존의 3.5%와 3.6%를 유지

■ 중국 인민은행, 월말 수요를 대비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

- 8/25(수)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발표. 이는 지금까지의 일일 공급규모인 100억위안에 비해 400억위안 증가한 수준

■ 로이터, 전세계 3/4분기 기업이익은 2/4분기에 비해 8% 감소할 전망

-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기업 2542개의 3/4분기 이익이 6782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(7340억달러)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예상. 지역별로는 미국, 유럽, 아시아가 각각 7.2%, 10.3%, 9.6% 감소할 것으로 추정

■ 일본은행 위원, 반도체 부족은 세계경제에 위험 요인

- 니카무라 토요아키 위원은 반도체 문제의 연내 해소가 어려우며, 반도체가 부족하면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지적

■ 대만 중앙은행 총재, 경제는 과열이 아니며 인플레이션도 안정적

- 양 친룅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1.6~1.7% 수준에 불과하며,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 및 유럽과 비교 시 완화정책이 강력한 것도 아니라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내구재 수주(전월비): -0.1%, 6월(0.8%), 예상치(-0.3%)
- 독일 8월 Ifo 경기기대지수: 97.5, 7월(101.0), 예상치(100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잭슨 홀 미팅 시작,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슈나벨 이사 강연
- 미국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영국 통화당국의 출구전략, 여타 중앙은행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 - Financial Times

(What the Bank of England exit strategy signals for other central bank)

- 영란은행이 모색하는 출구전략은 자산 축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(① 0.1→0.5%까지 금리인상 ②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 중단 ③ 0.5→1%까지 금리인상 ④ 보유자산 중도 매각).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미국 연준의 향후 출구전략에도 시사점을 제공
- 연준의 경우, 테이퍼 방식과 함께 8조달러의 자산/부채 축소에 대한 인식이 중요. 자산 축소 우선 출구전략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미국 주식성장주보다는 유럽주식가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세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

■ 연준의 테이퍼링, 시작보다 종료시점이 중요 - 블룸버그

(For Fed Taper, Forget When It Starts. It's the End That Matters)

- 최근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은 익일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테이퍼링 시점과 방법에 대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지 여부. 하지만 시장의 핵심은 장기채권 금리변화와 테이퍼링 종료 후 논의 예정인 금리인상 시기 결정
- The Sevens의 Tom Essaye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12월에 시작한 후, 내년 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. 이는 주식과 상품시장에 호재로 인식되며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2%로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
- 하지만 Standard Bank Group의 Steven Barrow는 테이퍼링의 속도 지연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논의나 신호 발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진단.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을 경고

■ 공급망 혼란 속 세계무역 호황, 원자재 등 강한 수요가 주요 원인 - Financial Times

(Supply chains are a mess. So how come trade is booming?)

■ Libor 사용 중단, 신규 금융거래 사용 불가 등 강력한 규제가 요구 - 블룸버그

(Libor Should Die With a Whimper, Not a Bang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